

병상서 나온 차대통령...총리 인선 속도낼 듯

이번주 업무복귀...속도감 있게 정국 대응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 멈춘 고강도 사정 본격화 예상

중남미 순방 후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잠시 쉬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일 "건강 회복 정도를 봐야겠지만 이번 주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4~5일께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엔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돼 있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청와대로 어린 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연례적으로 열린다.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 재개와 함께 국무총리 인선 작업과 정치·사회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29 재보궐 선거에 여당이 승리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상승해 40%대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정국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터졌던 지난달 10일 이후 여권에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터라 물밑에서 실무 준비는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 예상된다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총리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력 등이 총리 후보의 조건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재 민정특보,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한구 의원, 한광욱 국민통합위원장 등 10여명의 이름이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는 박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이번 주 중에 총리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다만,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가 아닌 새 후보를 찾는 경우 인선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에서 사실상 마련되면서 그에 대해 내용을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관심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과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회 분회의 처리

를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노동개혁 등 다른 개혁 과제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미흡해 아쉽다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백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4대 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 문제와 함께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터졌을 때부터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정치개혁도 고강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고강도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전남 창조경제센터 창업자 모집

13일까지 11~15개팀

입주공간 등 각종 지원

5월 말 문을 여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남지역 내 우수 창업자(팀)를 찾아나선다.

전남도는 3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1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자(팀)'을 4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센터특화시범사업 및 창업보육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케이푸드(K-food),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융복합 농수축산기술, 바이오메디컬 분야 등이다. 모집 규모는 11~15개팀이다.

참가 자격은 창업보육지원사업의 경우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이다. 센터특화시범사업은 전남도내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전이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이다.

선발된 팀 중 집중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여주시 덕충동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

센터의 입주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센터 내에 마련된 각종 부대시설, 공용 장비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접수는 창조경제타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처를 통한 서면접수도 가능하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5월 말께 개소해 전남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전남도 지역경제과장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 멘토링, 초기 자금 지원 등 집중적인 보육 및 사업화 지원을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 우량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단(http://www.creativekorea.or.kr/contest_061-286-38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미국서 한·중·중 반 아베 공조 시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시민단체 500여 명이 지난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중심가 밀레니엄 빌드모어 호텔에서 '반(反) 아베' 공조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2년간 120억 직접 심사·편성

공모·선정 통해 100명 구성

광주시의 예산 120억원을 직접 심사·편성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천세영)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1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장을 주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예산 편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등을 제출하고 심사와 선정에도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120억원 규모 내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직접 심사해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예산위원들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56명, 시의회와 실·국·자치구 등에서 추천받은 35명 등 위촉직 위원 91명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10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80명에서 외부 공모위원을 20명 늘렸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사실상 공무원이 사업 예산을 대부분 편성해 이름뿐인 시민참여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시는 민선 6기들어 시민의 참여 폭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들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공모에서는 472건에 사업비는 1080억원이 접수된 상태다.

시는 접수된 사업 위주로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분과위원회의 심사,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의 확보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장현 시장은 위촉식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30년 후 광주의 모습이 결정된다"며 "위원들이 광주 전체 시민의 대변자로 구체적인 제안자, 참여자, 감시자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식산업센터 내년 5월 준공...도심환경 적합한 아파트형 공장

동명동 옛 교육과학부지

40개 기업 입주 예정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도심형 산업의 요람이 될 광주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동구 동명동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준선·박해자 국회의원,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기관 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사업비 222억원을 들여 부지 5099㎡, 전체면적 1만165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지식산업센터에는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센터는 중소기업형의 '임대형 지식산업

센터 건립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0년 산업연구원 타당성 연구를 거쳐 선정됐으며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의 산업입지 부족 해소와 영세제조기업의 입지 지원을 위한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도심환경에 적합한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대상이다. 금융, 보험, 무역업,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업체의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도 함께 입주하는 복합시설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은 발달했지만 산업단지가 없었던 원도심의 산업구조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서울총판 010-2324-9523	경기총판 010-7533-5683	충청총판 010-8786-5904
전북총판 010-9087-4859	전남총판 010-9087-4859	경남총판 010-3853-5460
강원총판 010-5792-8872	제주총판 010-2324-9523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유통망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 권의, 천자당에 등 달베스메인 자질을 받으신 모든 영주님)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